화순군 '1만원 임대 아파트' 첫 입주자 50명 확정

청년 486명·신혼부부 20쌍 등 506명 몰려…8대1 경쟁 추첨

부영주택 이달 말까지 리모델링 마무리…7월3일부터 입주 시작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에 아파트를 빌려주기로 해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은 '화순군 만원 임대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50명이 가려졌다.

최근 열린 현장 추첨에서는 8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화순군은 지난 18일 오전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 주택' 입주자 추첨식을 열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추첨을 위한 신청자 입장이 시작된 뒤 정오 무렵 50명의 당첨자가 확정됐다.

50명을 뽑는 만원 임대 아파트 서류 전형에는 486명의 청년과 20쌍의 신혼부부 등 506명이 몰렸다. 전체 신청자의 56.9%(288명)는 20대가 차지했으며, 58.5%(296명)는 화순이 아닌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10명은 광주·전남이 아닌 다른 시·도에 살고 있었다. 5명 중 2명꼴(43.1%)로는 직장이 화순 밖에 있어도 화순에서 출퇴근할 의향을 밝혔다.

만원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면 20평형(전용면적 49.9㎡) 아파트 전세 보증금 4800만원을 내지 않고, 월세 1만원과 관리비·공과금만 부담하며 최장 6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화순군은 지난해 7월 만원 임대 주택사업을 계획하고 같은 해 12월 ㈜부영주택과 협약을 맺었다.

올해 4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를 받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화순군은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아파트 추첨 기회를 줄 442명을 골랐다. 추첨 현장에는 409명이 참석해 8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화순읍에 있는 부영아파트(1~6차)는 초등학교와 대학병원, 군청이 가까운 지리적 장점이 있었으면서도 공실 문제를 겪어왔다.

만원 임대주택에 포함된 부영 6차 아파트(1998년 준공)의 경우 1500세대 가운데 177호가 비어있어 공실률이 11.8%에 달했다.

이번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 협약을 맺으면서 부영아파트는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화순군은 신청자가 아파트를 떠나더라도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만원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남 시·군과 강원, 충남 등 다른 자치단체의 문의가 화순군에 잇따랐다. 나주시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아파트 재임대 방식을 빌린 보금자리 시책을 선보일 방침이다.

㈜부영주택은 임대 아파트 개선 공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만원 임대 아파트 입주는 오는 7월3일부터 시작한다. 화순군은 이달 말까지 입주자와 전대차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오는 8월 50명 추가 대상을 모집하며, 1년에 100호씩 4년간 총 4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2차분 만원 임대 주택(50호)을 계획대로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며 "탈락했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8월 공모에 다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만원 임대 아파트 입주 희망자가 추첨권을 확인하고 있다.

화순군 '만원 임대 아파트' 입주자 추첨이 진행된 지난 18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400여 명의 신청자가 추첨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화순군 제공〉

15만→3만8천원…나주시 대상포진 백신 파격 지원

65세 이상, 26일부터 접종 개시

기초생활·차상위 계층 무료 접종

나주시가 질병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파격 지원한다.

나주시는 오는 26일부터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가격을 크게 낮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본격 개시한다.

비용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망설였던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파격적인 접종비 지원이다.

65세 이상(1958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시민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3만8000원에 대상포진 백신접종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상포진 접종비용은 통상적으로 13만~15만원(자기부담금 100%)선이다.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비용 50% 이상을 절감하는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접종한다.

대상은 나주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일반 시민은 주민등록초본, 사회적취약계층은 관련 증명서를 방문 시 지참해야 한다.

대상포진 기 접종자는 제외되며 대상포진을 앓은 환자의 경우 회복 후 6~12개월 내 접종하면 된다.

대상포진은 신체 내 비활성화 상태로 잠복해 있는 수두바이러스가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발병한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 발병률이 높으며 신경절을 따라 홍반성 수포형태로 나타나는데 극심한 통증, 발진을 수반해 예방접종이 필수다.

나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대상포진은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이 최우선인 질병이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백신접종을 망설였던 어르신들이 이번 기회에 꼭 백신을 접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 축령산·병풍산에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임도 31개소에 설치 완료

장성군이 축령산과 병풍산 임도 31개소에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했다. 〈사진〉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씩 격자형으로 나눈 위치표시체계로 문자, 숫자 조합 10자리로 구성돼 있다. 산악, 하천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기 위해 고안됐다.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에는 국가지점번호와 큐알(QR)코드가 함께 기재돼 있다. 응급상황에서 국가지점번호 입력에 어려움을 겪을 때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 큐알코드를 비추면 된다. 해당 위치 국가지점번호가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입력돼 신고 시 용이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 안전사고 발생 확률도 함께 증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꾸준히 확대해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마량항 원형방파제서 낚시선 출항식

강진군이 22일 마량항 원형방파제에서 바다낚시 어선 출항식을 연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원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기관단체장, 낚시배 선주,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민선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바다낚시 어선 전진기지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일반 어선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4억 7123만원을 투입해 바다낚시 어선 전용 접안시설(부잔교)을 설치했으며, 바다낚시 어선 운영자를 위한 사무실도 문을 열었다.

또 바다낚시 어선 수리와 정착금도 지원하는 등 바다낚시 어선 전진기지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 힘써왔다.

이번 지원을 통해 SDN(소호강호)과 디데이호, 골드비너스호 등 7척이 바다낚시 어선으로 이전해 운영하게 됐다.

강진군 관계자는 "마량항은 일년내내 낚시가 가능한 온화한 기후와 청정한 바다 환경을 갖고 있다"며 "이번 시설 개선은 지금까지 수산업 위주로 진행돼온 군의 어촌개발사업이 해양 레저 관광으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군, 폭염대비 한우농가에 환풍기·지붕 열차단재 설치 지원

28농가에 1억7500만원 투입

함평군이 축사 내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환풍기〈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농장, 무항생제 농장, 녹색축산 등을 인증한 한우 사육 농가이며, 지원규모는 총 500대(군비 50%·자부담 50%)이다.

함평군은 지난 5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를 제외한 28농가에 사업비 1억7500만원을 확정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한우 사육 농가에 축사환풍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함평군은 지역 축산농가 30곳을 대상으로 축사 지붕 열차단재 지원사업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 여름 지구온난화로 가축들도 축사 내 고온에 노출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고온 대비 가축 관리 요령을 수시로 농가에 전파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보은산을 찾은 탐방객들이 별 모양의 포토존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보은산 나뭇가지 '★ 포토존' 인기 예감

탐방객들에 새로운 볼거리

일상을 달래고 내일을 위한 충전을 하기 위해 전남 강진군 보은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다.

보은산 V랜드 고성사 인근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에 큰 나무의 나뭇가지들이 얽히고설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별 모양의 포토존이 감수성 높은 한 군민의 제보로 알려졌다.

잎사귀가 엮어낸 하늘의 별 모양은 운동기구에서 하늘을 바라보다 발견했다. 오는 30일부터 '물, 숲 강진의 여름 속으로'를 슬로건으로 열릴 강진군 수국 축제를 앞두고, 특별한 이미지의 나무 별 포토존은 SNS 활동가 등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사진 명소가 될 것으로 강진군은 기대했다.

마국진 강진군 해양산림과장은 "군민의 휴식 공간 중 하나인 보은산을 잘 관리하고 꾸며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군, 공직자 부패·공익침해 신고 독려…"철저한 비밀보장"

함평군이 공직자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함평군은 군청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부패·공익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분야는 공직자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 전반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또 부적절한 사항을 강요·권고·유인·은폐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공직자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함평군 누리집 민원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전화 상담(1398, 110)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